

문 소 현

## 작업 노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방식을 이용한 영상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조금씩 이동 시키고 다시 촬영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정지되고 생명력이 없던 물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촬영된 프레임들 사이에는 짧게는 몇 초, 길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작가의 은밀하고 치밀한 개입이 무수히 들어간다. 각기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여러 점들이 이어져 연속된 직선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우주의 미세한 변화들을 자각 하지 못하고 실제로 보여지는 현상만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들은 점과 점 사이의 시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각각의 점들을 이어 붙인 하나의 직선으로 된 영상만을 볼 뿐이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개입이 언제나 있고 이러한 특징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속성과 흡사하다. 이런 부분이 내게 스톱모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도 없이 반복된 노동을 하는 이유이다.

퍼펫을 이용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방법을 사용하면서 퍼펫들이 만들어 내는 판타지의 창출보다는 그 퍼펫들을 통해 어떻게 실제 살아 있는 인간들의 형상을 선명하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다. 그리하여 사회와 그 속의 인간의 모습을 블랙유머로 재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로, 영상 속에 존재 하게끔 한다.

라이브 액션과 스톱모션 기법을 혼합한 방법으로 비 조작된 실재의 연속적 운동과 조작된 허구의 분절적 운동의 병치로 영상의 독특한 리듬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 ■ 주요 작품 이미지

공원 생활\_Life in the park, 12 channel video installation,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pSNz6Yx-oDs>

<life in the park>는 도시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여가,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공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기괴하게 변모해가는 공원의 풍경을 애니메이션으로 재해석한 작업이다.

오리에게 화살이 없는 활을 진지하게 겨누고 있는 남자. 휠체어를 끌고 힘겹게 산책을 하는 사람. 샘솟고 있는 검은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지지대로 연결된 힘없이 흔들리는 나무숲. 흙먼지를 내고 사라지는 덤프트럭. 목줄에 묶인 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어 울부짖는 개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려 줄을 서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 먹이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토해내는 동물. 활활 타는 불을 보며 실 새 없이 고기를 굽는 사람들....

영상 속의 등장인물들은 정확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는 원인과 결과가 삭제되어 있고, 시작과 끝도 부재하고 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서로 관계 맺지 못하고, 그들이 있는 시간은 어디에도 귀착되지 않는 듯 불분명하며, 되풀이 된다. 영상 속 공간은 그들의 의지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풍경과 행위들은 위기의 단계에서 머물 뿐 결코 절정, 해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위기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새롭게 시작하지도 못한 채 끊임없는 락에 걸려 있는 것이다.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은 한없이 반복되는 행위들은 12채널비디오로 설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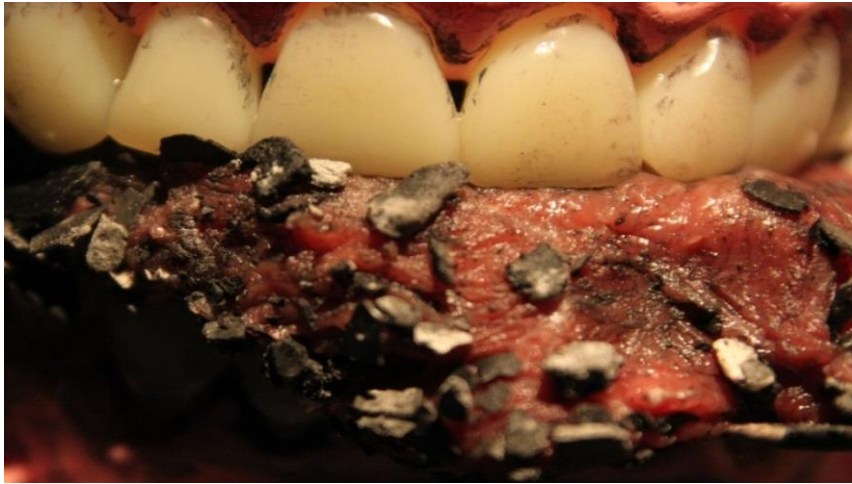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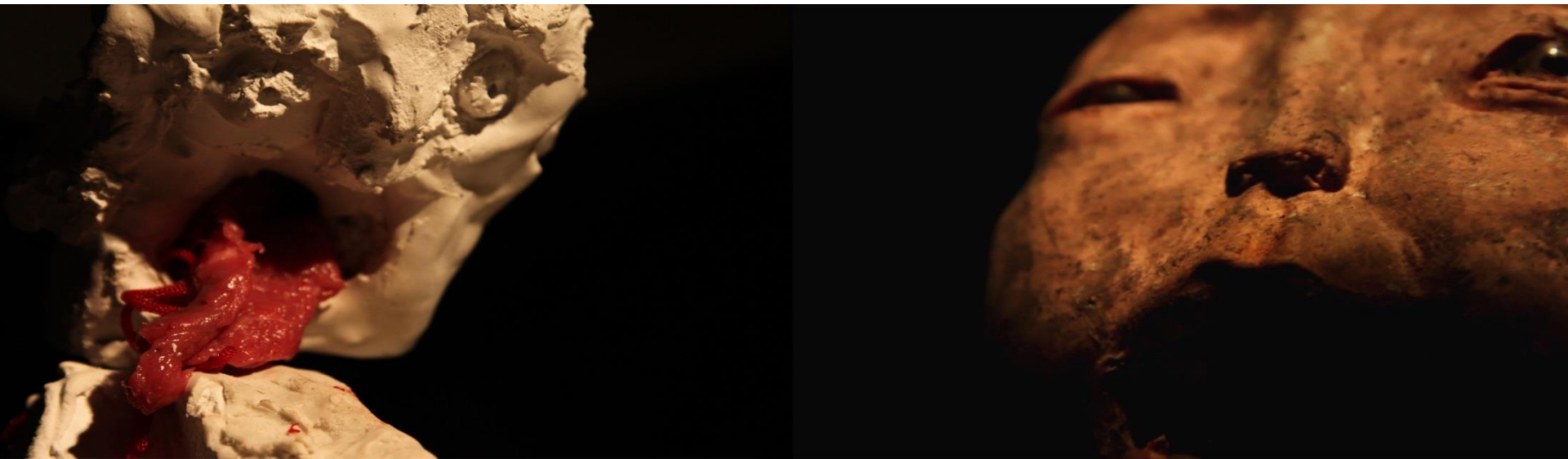
•스페이스 오뉴월 <Life in the park> 전시 설치 전경



•스페이스 오뉴월 <Life in the park> 전시 설치 전경

텅 \_ The black flesh in the mouth , single channel video, 11min 47sec , 2012





<http://www.youtube.com/watch?v=1UA8l-Zfq0c>

입과 혀는 음식물을 빨아들이고 갈기갈기 찢고 삼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외부의 것을 자신을 것으로 끌어드린다. 반대로 자신의 것을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음성을 만들어 내뿜으므로써 자신의 내부를 외부와 접촉시킨다.

“혀를 숨기고 있는 입. 입을 벌리면 들어나는 내부의 우두머리인 빨건 혀”

그 둘은 자기와 세계, 친밀성과 공개성, 욕망과 폭력이 한데 뒤섞이고 그 경계가 모호해 지는 장소이다. 바흐친은 그러한 입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체 세계가 있다고 보았다. <텅> 는 이러 한 입 ,그 안에 숨어있는 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영상 속에는 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체 입안에 가득 차 있는 근육을 고기로만 인식하는 인물과, 혀를 내뱉기만 하는 굳어져 버린 인물들이 등장한다. 혀의 기능이 상실된 인물은 혀를 내뱉는 인물들과 공존 하고 싶지만 그의 혀는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내뱉어지는 혀들에게 공격 당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아래로 추락하게 되고 나오지 않는 혀의 존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문하기 시작한다. 그 강도는 점점 강력해져 혀가 분해되고 삼켜진다.



•낭만적 나침반 전시 설치 전경

빛의 중독 \_ poisoning of light, single channel video, 7min 06sec, 2007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인간은 사적 영역이 축소되어 지고 있다. 도로와 건물 안 밖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자신의 모습이 하루에도 수 차례 노출되어지고 인터넷을 통한 끊임없는 개인정보의 유출도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빛의 중독>은 이러한 현실을 빛과 그 빛에 쫓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풀어 보았다. 영상 속 남자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히 쉴 수 없다. 집 어느 틈으론가로 계속 빛이 침투해 그를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이다. 견딜 수가 없게 된 그는 밖으로 도망쳐 아무 건물이나 숨게 되는데 그 건물들도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힘이없이 무너져 내린다. 실체 없는 빛은 어느새 그를 발견하고 쇠창살 보다 더 강력히 그를 억압한다. 무력해진 남자는 자신의 발 밑에 생기는 작은 그림자에 숨어 짧은 휴식을 취한다.

[http://www.youtube.com/watch?v=YK8T\\_PpdGzg](http://www.youtube.com/watch?v=YK8T_PpdGzg)

없애다 ... 없어지다 \_ make it vanish ...vanishes,

single channel video, 6min 31sec, 2009





[http://www.youtube.com/watch?v=2YvuI9\\_cXjs](http://www.youtube.com/watch?v=2YvuI9_cXjs)

손끝에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남자의 관한 6분짜리 영상이다.

남자는 손끝에 우연히 생긴 상처가 계속 신경이 쓰인다. 신경을 쓰면 쓸수록 작은 상처는 그에게 큰 무게로 다가온다. 참지 못한 남자는 그 상처를 칼로 잘라내 버린다. 그 결과 원래의 상처는 없어졌지만 새로운 큰 상처가 생겨난다. 남자는 또다시 그 새로운 상처 또 한 잘라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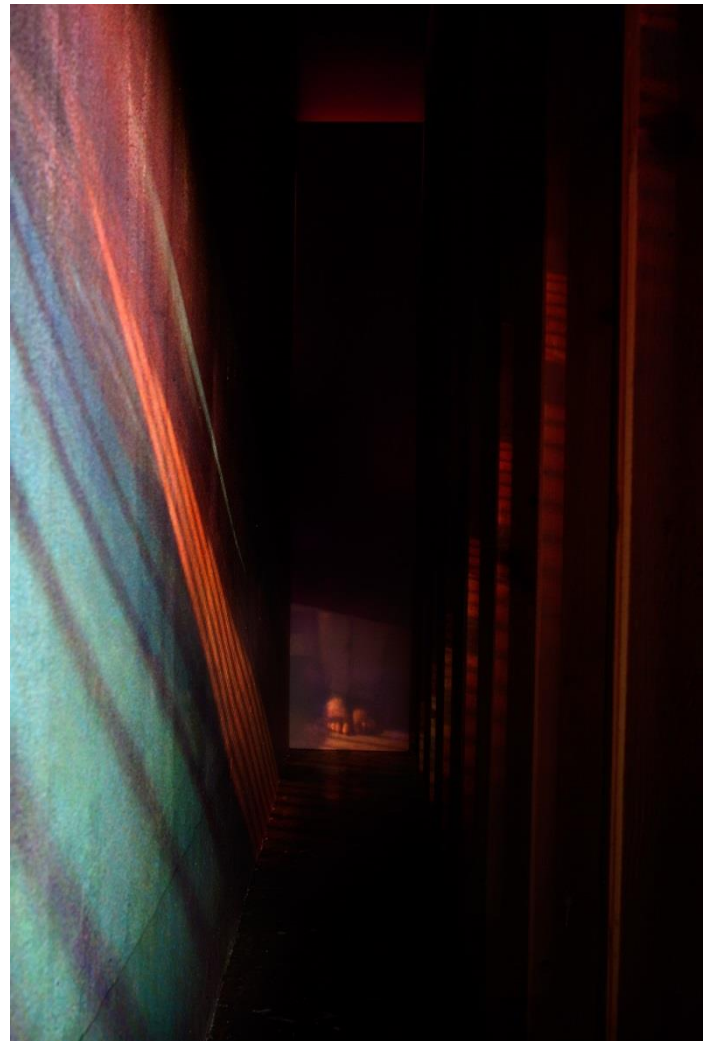
“없어진 상처들..... 그리고 다시 생겨버리는 또 다른 상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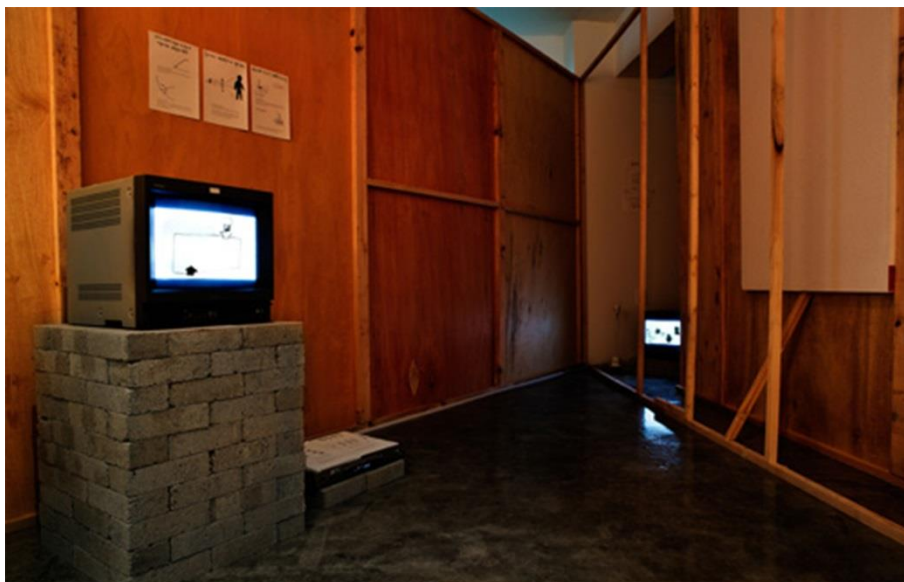
상처를 더 이상 없앨 수 없게 된 그는 상처의 고통에 진동하는 입을 닫아버리고 상처가 반응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아 버린다. 그리고 상처의 냄새를 맡지 못하게 코를 없애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없애 버리기 위해 눈을 파 버린다. 새롭게 생겨난 상처들에서 피가 흘러나와 그의 온기를 가지고 가버린다. 결국 그는 상처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까지 없어지게 한다.

## ■ 그외 작품 이미지

To bury her head ostrich like in the sand,

projector, plywood, variable installation, 2013





## <알아서 조심> 전시 설치 전경

서울 안, 원룸을 기반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계약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단기적 주거생활을 하며 옮겨 다닌다. 대개 이런 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불안전성은 '알아서 조심'이라는 은유로 개인의 문제로 치환된다. 경제적인 상황, 개인의 치안, 집주인과 이웃들과의 관계 등의 문제들은 가십처럼 가볍게 오고 가지만 그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방에서 방으로 옮겨 다닐 수 밖에 없는 세대의 이야기,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불안감, 혼자 사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한계에서 오는 무력감들이 내제되어 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버티면서 자조하는 것.

- 건물주가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얇은 합판으로 쪼개 놓은 공간은 타인의 소리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자신의 소리 또한 안으로 삼켜야 하는 장소다. 이러한 장소에서 작가는 채광과 환기, 그리고 낮과 밤의 시간성을 가지는 창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에 주목하여 리 모델링 된 후에 갤러리175에 생긴, 전시장 내부에 존재하지만 전시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곳에 작품을 설치했다.

Pretty Good Look, single channel video, 19min 6sec, 2009



수상한 사람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 사회구조와 개인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는 어떤 필터링의 기재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의 필터링 안으로 우리들을 던져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모니터링팀(Monitoring Team)의 공동작업으로 제작되었다.

You can't leave me, single channel video, 4min 35sec, 2009



영상 속 등장하는 50대 후반의 여자는 온갖 물건들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 소지품들로 가득 차 있는 여러 개의 가방을 두 팔에 들고 있으며 등에는 자신의 몸보다 커다란 배낭을 지고 있다. 짐의 무게 때문에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낡아져 버린 핸드백과 배낭은 소지품들로 가득해 금방이라고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한발자국씩 걸어 갈 때마다 그 움직임으로 인해 물건들은 계속 떨어지고 그 여자는 계속해서 물건들을 주워 올리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어디론가 아주 천천히 걸어간다.

# 활동 경력\_C.V

1983 서울 출생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 비디오예술 전공 졸업

2008 경희대학교 미술학부 조소 전공 졸업

## 개인전

2016 Life in the park . 스페이스 오뉴월

## 단체전

2016 유니온 아트페어, 블루스퀘어 네모, 서울

2016 <Sensible Reality 감각적 현실\_2016 창작공간페스티벌전> , 서울 시민청. 서울

2016 디애니메이션쇼, 신세계 갤러리

2016 낭만적 나침반, 경기창작센터

2016 Keep on, space+ gallery

2015 pilot hole. 복림빌딩

2015 Freeze Frame, 175 갤러리

2015 어쩌다보니 애니메이션, 아트스페이스 오

2014 Spectrum of object : 김진만 & 문소현 2인전, 경희대 미술관

2013 알아서 조심, 175 갤러리

2012 시간 채집, 홍익대학교 영상제

2012 사이사이 프로젝트- 영상 상영회, 초능력 bar

2011 몸과 재앙, 경희대학교 미술관

2010 산으로 간 펭귄, 백남준 아트센터

2009 유토피아 관리, 175 갤러리

2009 suggestive Moments, 스페이스 함

2009 이음, 한국 예술 종합학교 신축 교사 갤러리

2004 크리스마스전, 포스코 미술관

## 영화제

2016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국제 단편경쟁 부문

2016 서울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글로벌 구매전

2013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 글로벌 구매전

2013 ARKIPEL Int'l Documentary and Experimental Film Festival, Official Selection

2013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단편부문

2009 프랑스 낭트 3대륙 영화제, 아시아 초청 부문

2008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파노라마 부문

## 수상 및 기타 이력

2016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관객구매상)

2016 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 선정

2016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선정 작가

2014 2월 월간 미술 new face 100인 선정

2012 트래블 그랜트 상 수상, 일현 미술관

## 전시 기획

2015 Freeze Frame, 175 갤러리

2013 알아서 조심, 175 갤러리

## 출판물

2013 Cabinet : The Travel \_예술가 여행이야기